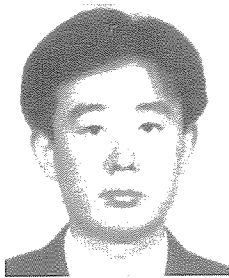


미래세대의 예술양식

전자 및 통신기술의 발달은 문학의 토대 자체를 바꾸어 놓을 가능성이 있다. 책처럼 인쇄매체를 기반으로 한 문학은 사라지고 영상 및 음성매체가 책을 대신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문학의 내용도 달라져 고전문학 작품은 밀려나고 가볍고 속도감 있는 작품이 그 자리를 대신할 지도 모른다.



이 한 음
(작가)

문학은 과학자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어왔다. 과학자들이 문학 작품을 자주 인용하는 것도 드문 일은 아니다. 이것은 근대까지 과학과 문학이 분리되지 않았던 서양의 학문 전통과도 관련이 깊다. 과학 지식과 인문 지식을 고루 갖춘 인물인 정약용이 거중기를 개발한 것이 큰 사건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우리 과학사를 생각하면, 부러운 일이지만.

그렇다면 과학은 문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언뜻 보면 문학은 과학을 싫어하는 듯하다. 과학을 직접 다루는 과학소설이 푸대접 또는 무대접을 받는 것을 보면 말이다.

과학이 이런 대접을 받는 데에

는 과학이 자유로운 상상력, 문학적 상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인식이 한 몫을 한다.

다윈주의, 사회생물학, 생화학 등이 프로이트 학설을 점점 몰아내고 있는 것이 그 예다. 「양들의 침묵」을 비롯하여 인간의 심리를 다룬 소설 가운데 프로이트나 융의 학설을 끌어들이지 않은 것은 거의 없다. 무의식,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같은 이론이 품고 있는 신비함과 두려움은 인간의 상상력을 풍성하게 자극해왔다.

그런데 과학은 그 이론이 해석해왔던 것들을 유전자와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문학이 이용할 상상의 범위가 그만큼 좁아진 셈이다.

현실 기피하는 오늘의 문학

이런 경향은 문학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치 문학 작품에 칼을 대는 것처럼, 과학이 문학의 정확성을 검증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날카로운 칼은 작품 속에 과학 지식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다. 아

에 환상문학이라고 자처하지 않는다면, 이 칼날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때로는 이 사실 여부가 작품의 가치를 돌이킬 수 없이 떨어뜨리기도 한다.

과학이 휘두르는 또 하나의 칼은 변화의 속도다. 문학은 시대를 반영한다. 작품 속에 묘사된 마을 정경, 사람들의 옷차림, 생각, 사건 등을 통해 우리는 당시의 삶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추억이나 향수, 정겨움이나 안타까움을 불러온다.

그러나 오늘날의 기준에서 볼 때, 초보적이고 별 의미도 없는 과학 지식을 상세히 묘사한 작품은 흥미를 잃게 만든다. 대개 그런 묘사 뒤에는 그 지식이 윤리, 자연, 사회, 인간성을 파괴할 것이라는 우려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런 우려는 대개 과장임이 드러난다. 아니면 과학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빨라 그런 우려들이 새로운 우려에 눌러 관심에서 밀려나가나.

이것은 문학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기 힘들다는 말과 같다. 문학이 시대의 비판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이제 과학을 모르고서는 변화의 흐름을 감지할 수 없다. 그래서 우려는 단지 우려로 끝나고 만다.

지금의 문학은 현재와 현실을 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추억이 서린 과거와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거나, 먼 미래와 환상 세계를 다루는 작품이 늘어나고 있는 것

이다.

이것은 문학이 그만큼 현실과 변화를 포착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문학이 현실 비판 기능을 잃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인문학의 위기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예전에는 현실을 포착하기가 비교적 쉬웠다. 자연과 인간은 풍경화처럼 눈앞에 펼쳐져 있었고, 그 한 부분을 포착해서 생생하게 묘사할 수 있었다. 그 속에 숨어 있는 의미까지도,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은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과학기술 덕분에 우리가 접하는 세계는 크게 늘어났고 시간은 빨라졌다.

이제 우리는 풍경화가 아니라, 점점 속도가 붙으면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을 본다. 우리는 그 흐름을 정지상태로 볼 수 없다. 시선을 고정시키는 순간 세상은 우리를 지나쳐 저만치 흘러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학은 점점 더 현실을 다루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 과학이 문학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것 같다. 사실과 속도를 무기로 삼아서 말이다. 그러나 많은 과학자들이 강조하고 있듯이, 사실 과학은 상상력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시킨다. 신화는 아홉층의 천계와 별자리들을 통해 인간의 상상을 자극해왔다. 그러나 신화 속에는 블랙홀, 말머리 성운, 암흑물질 등 오늘날의 천문학이 보여주고 있는 다채로운 우주가 없다.

문제는 과학이 창조적 영감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사고방식에 있다. 과학은 냉철한 이성을 자극하지, 감수성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학적 상상력과 문학적 상상력은 별개의 것이 된다. 그러나 블랙홀이란 단어를 듣고 상상력을 펼쳐보지 않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사실 상상을 가로막는 것은 상상력에 울타리를 치려는 바로 그런 사고방식이다. 그리고 그런 사고방식을 부추기는 것은 과학에 대한 무지이다.

영상·음성매체가 책을 대신

마이클 크라이튼의 「쥬라기 공원」에서 볼 수 있었던이 오늘날의 문화를 지배하는 것은 과학이다. 구체적인 과학 지식과 상상력에 토대를 둔 소설들은 대중의 인기를 업고 영화, 게임, 캐릭터가 되어 전 산업과 일상생활 속으로 파고든다.

그에 따라 과학과 기술을 외면하는, 혹은 무심한 척하는 문학은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간다. 과학이라는 현실을 외면함으로써 현실 비판이라는 책임을 저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과학소설이 그만큼 성과를 거두었다는 말은 아니다. 대체로 과학소설은 새로운 것을 묘사하는 데 치중한 나머지 비판능력을 잃고 있다. 즉 반성과 사색 기능이 부족한, 오락과 흥미 위주의 문학인 셈이다.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블레이드 러너」가 자주 인용되는 것도 바로 그러한 현실 비판 기능을 잃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전자 및 통신기술의 발달은 문학의 토대 자체를 바꿔놓을 가능성이 있다. 인터넷의 웹 방식을 응용한 소설이 그 한 예다. 이것은 책 곳곳에 링크를 넣어 원하는 쪽을 찾아가며 읽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줄거리, 진행 방식, 결말을 다양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책이라는 인쇄 매체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읽기가 불편하기 때문이다. 물론 전자책에는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연관지어 책처럼 인쇄매체를 기반으로 한 문학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영상 및 음성매체가 책을 대신한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와 더불어 문학의 내용도 달라질 것이다. 고전이라고 일컬어지는 문학 작품들은 주류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 이것들은 빠른 속도가 특징인 첨단 매체에 어울리지 않게 긴 호흡과 깊은 생각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가볍고 속도감 있는 작품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할지도 모른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미래 세대이다. 우리는 그들이 어떤 예술양식에 익숙할지, 그리고 어떤 감수성을 지닐지 알 수 없다. 수십 년 전의 과학소설 작가들은 현재의 과학과 기술이 어떠한지 예측한 바 있다.

그리고 지금의 작가들은 인간과 컴퓨터가 융합되는 미래를 예측하고 있다. 그런 시대에 문학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흥미로운 질문이 아닐 수 없다. ①7